



사회 >> 3면
거대 인공지능 '챗 GPT' 교육제도 슬렁

기획 >> 4면
'서경대의 숨은 인력' 자치기구를 소개합니다!

현장르포 >> 5면
'현금 없는 버스' 정말 괜찮을까?

제568호
2023년 4월 11일(화)

1분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성료, 더 나은 서경을 위한 한 걸음 내디뎠다

지난 3월 27일 진행된 제1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오후 6시 30분 서경대학교 본관 문예홀에서 진행됐다. 전학대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비롯한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 학과 및 학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인준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논의안건, 기타 및 건의안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총학생회 국장 인준을 위한 전학대회에 참가한 학우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획득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국장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 인준이 성사됐다.

이후 활동 보고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 대표자들은 신입생 문화제, 단과대학 MT 등 총학생회가 펼친 지난 두 달간 여간의 활동을 확인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생회비 예결산 보고는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공약 보고에서는 총 8가지 내용을 다뤘다. 첫 번째로 '노후화 사물함 교체 및 수리'다.

가장 노후화된 복악관 사물함을 기점으로 철제사물함 혹은 전자 사물함으로 교체할 것임을 밝혔다. 두 번째로 '총학생회 주간 신설행사 기획'이다. 현재 신설행사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 '교내 공유기 시설 환경 및 속도 개선'이다. 현재 유망, 북악, 해인, 은주관 등에서 직접 인터넷 속도 측정을 진행했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속도 및 연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장소의 공유기 추가설치 및 속도 개선을 약속했다. 네 번째로 생활관 냉난방시설 환경개선이다. 학교 측과 논의를 통해 기존에 있던 실외기 위치를 조정하고, 난방시설 고장의 경우에는 난방시설 자체의 교체를 약속받았음을 알렸다. 다섯 번째는 '교내 노



후화시설 환경개선'이다. 교내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 각 학과 및 자치기구별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했음을 알렸으며,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청운관부터 순차적인 수리 진행을 약속했다.

여섯 번째로 '전공역량 기회 제공'이다. 학교와 함께 전공역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보다

많은 학우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곱 번째로 '교내 식당 모니터링 진행'이다. 교내 식당 설문조사 진행을 통해 불만 사항이 가장 많은 식당을 선정하며 학교 측과 식당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장 마지막 공약인 '신설 장학금'은 논의 안건으로 선정됐다. 보다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대표자들은 장학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자유로운 토의를 펼쳤다. 공약 보고가 완료된 뒤에는 의결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자 학생들은 빨간 색과 파란색 종이카드를 사용해 찬반을 표했고 이를 통해 총 6개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다음으로는 전체 학생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받은 사전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가장 뜨거운 논의가 펼쳐진 안건은 바로 '셔틀버스 재개 가능성'이었다. '위로' 총학생회 정학생회장 김희범 학우(문론 17)는 "현재 길음역에서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자유 질의응답 시간을 마지막으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된 전학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약 300명가량의 학우가 참석했는데, 더 나은 서경을 위해 힘쓴 전체 학생 대표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다가올 2분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도 학우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코로나로 전면 운행 중단된 셔틀버스, 재개 박차 가하나?



본교의 셔틀버스는 2019년까지 운용됐다. 그러나 2020 코로나 창궐 이후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전염병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후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본교의 수업방식 또한 부분 대면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등교하는 학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셔틀버스 운용에 불만을 재개하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대학교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서경대학교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셔틀버스 재개해주세요", "셔틀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원성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길음역에서부터 본교 정문까지는 약 13~15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뒤론 평균적으로 약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과도한 인원이 한꺼번에 몰림과 동시에 버스 탑승 인원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철첩산중'인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로' 총학생회가 나섰다.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셔틀버스 재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설문 결과 총 1,709명이 응답

하였고, 이 중 1,636명이 셔틀버스 운용에 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셔틀버스를 운용할 때 이용금이 발생하더라도 운영을 희망하는 학우는 전체 응답자 중 76%로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출처: 위로 총학생회] 또한 이들은 약 5일간 학우들이 가장 많이 등교하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길음역 3번 출구와 10번 출구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2019년까지 운용됐던 셔틀버스의 노선이 길음역 3번 출구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3번 출구의 경우 이미 많은 학생이 10번 출구에서 탑승했기 때문에 약 4~5명 정도

만 탑승 가능하단 사실을 파악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로 총학생회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교 측에 셔틀버스 재운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해결책이 필요한 현 상황 속, 셔틀버스가 과연 재개될 수 있을지 학우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사 령

4월 11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 면 정기자 윤지예 (광흥 22)
- ▶ 면 수습기자 권경빈 (문론 20)
- ▶ 임 수습기자 유지우 (아동 20)
- ▶ 임 수습기자 한채린 (아동 23)
- ▶ 임 수습기자 김나연 (아동 22)
- ▶ 임 수습기자 김나연 (글비 23)



‘든든’ 총동아리연합회, 2023 동아리 알림제 성황리에 막 내려

3월 30일(목)부터 31일(금)까지 이틀간 진행된 서경대학교 동아리 알림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교내 ‘스콘 스퀘어’에서 개최됐으며, 약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면 비대면 수업체계가 지속되면서 2019년을 기점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개최된 대면 행사인 만큼 스콘 스퀘어는 동아리 알림제를 즐기기에 적합한 학우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이번 2023 동아리 알림제는 ‘든든’ 총동아리연합회와 13개의 교내 중앙 동아리가 모여 진행됐다. ‘든든’ 총동아리연합회 측은 “서경대학교의 중앙 동아리를 알리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 문화의 민중성 및 대중성을 전파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행사의 진행 목적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아리별 부스 운영, 축하 공연, 총동아리연합회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일정들로 구성됐다.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 ‘그라미’는 첫 소절 듣고 노래 맞추기, 고음 대결 등 다양한 이벤트성 부스를 운영했고, 댄스 및 힙합 동아리 ‘SDR’은 핫도그와 감자튀김 등 간식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야구동아리 ‘적시타’는 떡볶이 판매, 배트로 야구공 맞추기 등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부스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동아리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부스를 운영하며 동아리 알림제의 불거리를 한층 더했다. 동아리 알림제가 진행된 첫째 날에는 동아리 별 축하 공연이 연이어 이어졌다.

밴드 동아리 ‘위커스’, 뮤지컬 동아리 ‘유드림’ 등 무대를 채우는 학우들의 열기로 스콘 스퀘어는 후끈 달아올랐다. 총동아리연합회가 주

최한 이벤트 또한 즐길 거리 중 하나였다. 이들은 이틀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중 학우들의 높은 관심을 끈 이벤트는 바로 ‘동아리 부스 스탬프 투어’였다. 부스 3곳 이상을 체험하고 도장을 받아온 학우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배달의 민족 쿠폰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했다.

이외에도 무료 생맥주 증정 행사,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소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총동아리연합회는 이번 행사에 있을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스콘 스퀘어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도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든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종휴 학우(컴퓨터공학과 21)는 “처음으로 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

준 동아리연합회 일원들 그리고 이번 동아리 알림제를 위해 같이 노력 해주신 각 동아리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이번 동아리 알림제를 주최한 소감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학 캠퍼스 또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 가는 모양새다. 2023 동아리 알림제를 바탕으로 올 한해 펼쳐질 다양한 행사에도 학우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서경대학교 ‘해오름제’ 4년 만에 열려... “올해 잘되길 바라” 염원 담았다



지난 3월 31일, 서경대 스콘스퀘어에서 해오름제가 열렸다. 동아리 알림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진행된 해오름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 인문과학대·사회과학대·이공대·예술대 회장단, 신문사·졸업준비위원회·총동아리연합회·학생복지위원회 회장단)가 참석했다. 또한 각 단과대학과 자치기구별 국장 및 수습부원, 각 학과(부) 회장단과 학생들이 참여해 4년 만에 열린 ‘해오름제’를 빛냈다.

해오름제는 학생들끼리 한 해를 잘 보내자는 의미에서 각 단과대학 및 자치기구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고사를 지내는 행사다. 이날 해오름제는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예술대학, 자치기구,

총학생회 순으로 무대에 올라 대표자들이 소개 및 인사를 한 다음 고사를 진행했다.

이틀에 걸쳐 동아리 알림제를 주관한 제39대 ‘든든’ 총 동아리연합회 정학생회장 김종휴 학우(컴공 21)는 “동아리 알림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하여 “자치기구를 비롯한 모든 학생 대표자들 고생하셨다”며 “자치기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해오름제에 만전을 다한 제51대 ‘위로’ 총학생회 정학생회장 김희범(문공 17) 학우는 “올해 신입생 문화제로 시작해 어제와 오늘 진행된 동아리 알림제와 이렇게 해오름제가 지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들 힘내서 재미있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올해 해오름제는 4년 만에 열려 더욱 뜻깊었다. 이번 해오름제에 지리

한 학생들은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바랐다. 이제 막 본격적인 행사의 문을 연 서경대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ZOOM UP



쓰레기와 함께 버린 양심

송민경 기자

“시대의 변화에 맞춘 변화”...광고홍보콘텐츠학과가 혁신하는 이유는?

지난 2020년, 문화콘텐츠학과(이하 문콘)가 광고홍보콘텐츠학과(이하 광고콘)로 학과 명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게시되고 문콘 학우들의 비판과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학교 측은 기존 문콘의 커리큘럼은 그대로 유지되며, 인기 교수진의 수업 역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고·홍보 분야의 과목을 점진적으로 추가시켜 광고·홍보·콘텐츠의 세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의 끝에 문콘에서 광고콘으로의 변화는 원

할 수 있었다.

뉴미디어시대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2023년 2월 9일, 광고홍보콘텐츠학은 또한 혁신을 공고하였다. 인문사과대에서 디자인&영상 대학으로 이적한다는 것이다. 단과대의 이적을 두고 소속 학과생들의 슬럼프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고콘 학생회 사제는 ‘서경대학교 디자인&영상대학 내 광고 관련 학과 신설’에 대한 학생체와의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 학교 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 광콘의 이론 수업 뿐만 아니라 실습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학생회 역시 이를 수긍했다는 내용이었다. 신설될 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습 수업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문콘이나 광콘 학우들도 수강할 수 있고 기존 등록금 역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학과 이전의 경우 등록금 인상과 제도상의 이유로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이전이 아닌 신설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더하

여 사계 학생회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많은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자체가 통폐합되는 변화무쌍함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사회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의 융복합으로 학문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과가 변화의 속도를 맞춰 혁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학우들 역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

하는 학우들을 위해 학교 측도 기존 문콘·광콘 학우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반드시 지켜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이종은 기자
(20eun00@naver.com)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이재명 둘러싼 견약 재에 민주당 분위기 뒤숭숭.. 여, 야 리스크 관리 ‘총력전’

경제

하이브 VS 카카오 SM 공개매수 현황

사회

거대 인공지능 ‘챗 GPT’ 교육계도 슬렁

문화

10명중 7명은 선풍 시청...이용률 1년새 10% 넘게 늘어

연예

원로가수 고(故) 현미 장례식,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

스포츠

2023 KBO 개막.. 올해 우승은 누구?

‘서경대의 숨은 인력’ 자치기구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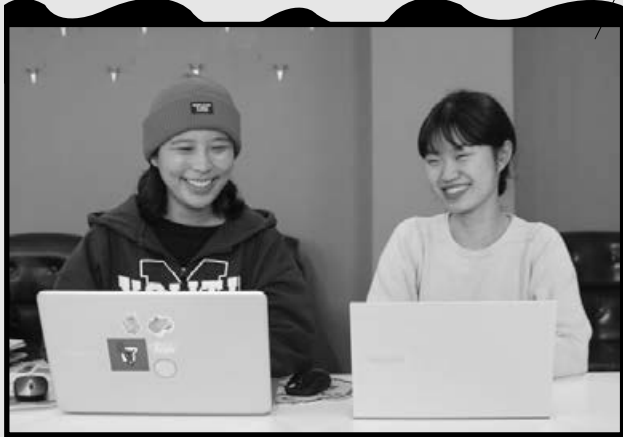
무대를 밝히는 조명 감독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고, 거리를 빛내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누구보다 캄캄한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학교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간다.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편안한 대학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숨은 인력’ 자치기구에 대해 알아보자.

자치기구는 학생들의 주제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설립한 기구다.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 그리고 신문사로 구성된 이들은 학생들의 취미생활, 학생 복지, 교육 활동, 문화 체육 및 정서생활 함양, 구성원 간 소통과 공유 등에 이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가간 시간들로 인해 대학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학우들에겐 자치기구의 존재가 많이 생소할 것이다. 코로나 펜데믹이 점차 완화된 요즘, 자치기구는 위축된 캠퍼스를 다시 활력 넘치도록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재개하고 있다. 이에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각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경대학교 교내 자치기구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치기구를 통해 어떤 유익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자.

‘발로 뛰는 지성언론’ 서경대신문사



서경대 신문사는 교내 유일한 언론기관으로서 75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단체다. 2023년 4월 기준 편집장, 부편집장, 정기자 2명, 수습기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습기자 모집은 매 학기 초 진행된다. 이들은 학기 중 한 달에 한 번 신문을 편집해 발행하며, 주로 교내에서 발생한 이슈들과 사회 문제들을 취재한다. 또한 인터뷰, 사진 촬영, 기사 작성, 기사 수정 등 신문과 연관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서경대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편집장&부편집장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편집장).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7대 편집장 소프트웨어학과 19학번 이예은입니다.
A(부편집장).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7대 부편집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21학번 노여 전공 송민경입니다.

Q.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이후 신문사의 바뀐 양상들은 무엇인가요?

A(편집장).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고 행사들이 속속히 재개되면서 취재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확산세가 심했을 때는 취재를 대부분 서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확산세가 감소함에 따라 직접 보고 느낀 점을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취재 및 인터뷰를 진행하며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Q. 신문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A(편집장). 562호 ‘서경대 주변 상권’을 취재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 19 창궐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를 몸소 감내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기사로 작성하면서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A(부편집장). 모든 호가 의미 있지만 특히 561호 현장포면이 뜻깊습니다. 제 아이디어로 제가 팀장이 된 순간부터 취재에 대한 열정으로 들끓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생한 모습을 담기 위해 홀로 사진 기사를 다녀온 후, 팀원들과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뜨거웠던 집회 현장을 포착하고, 기사로 작성하여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음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Q. ‘교내 유일한 언론 기관’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A(편집장). 다양한 콘텐츠와 기사 형식을 통해 특색을 갖춘 언론 기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대학 신문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 속,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신문사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싶습니다.

A(부편집장). 서경대 곳곳에 저희 신문사 기자들의 손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를 바라며 신문사를 통해 학우들의 눈과 귀를 환히 트이게 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서경대 신문사가 ‘교내 유일 언론 기관’에서 그치지 않고 서경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언제 ‘든’ 어디서 ‘든’ ‘든든’ 총동아리연합회



21학번 김중휴입니다.
A(부학생회장). 정운관 동아리원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 제39대 ‘든든’ 동아리연합회 부학생회장 공공인재학부 20학번 배예진입니다.

Q.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이후 동아리연합회의 바뀐 양상들은 무엇인가요?

A(정학생회장).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동아리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없던 동아리들을 보며 안타까웠는데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보여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시 동아리 알람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동아리연합회 주관의 행사를 기획하게 되어 뜻깊은 한 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동아리연합회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A(정학생회장). 저희가 동아리를 위해 하는 당연한 일에도, 부원들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저희에게 돌아왔을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고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Q. 동아리연합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A(정학생회장). 당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다시 이전처럼 동아리 활동을 증진시켜, 서경대학교 학우분들의 학교생활이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는 대학생활의 꽃입니다. 알람 책자 꼭 읽어보시고, 언제든 어디서든 저희 동아리연합회와 교내 동아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동아리 여러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학생회장&부학생회장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정학생회장). 안녕하세요, 언제든 어디서든 힘이 되겠습니다. 제39대 든든 동아리연합회 정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



Q. 졸업준비위원회로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A(위원장). 아무래도 저희 활동에 제한이 있어 많은 학우분들이 졸업준비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학우분들께 여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해 늘 아쉬우며 올해 학사복 대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1,2학기에는 시험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식 제공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는 점과 졸업예정자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졸업준비위원회를 하면서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졸업 앨범 촬영을 하거나 학사복 대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우분들의 미소를 봤을 때가 가장 보람됐습니다. 학우분들이 학사모와 학사복을 착용한 채 웃으면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위원장). 올해 4학년 학우분들 및 졸업예정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74대 졸업준비위원회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4학년 학우여러분과 졸업예정자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A(부위원장). 서경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희 졸업준비위원회는 여러분의 졸업을 기념하고 추억을 남겨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며, 더 많은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제74대 졸업준비위원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4학년이 되신 학우분들을 포함한 졸업 대상 학우분들이 남은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졸업준비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으니 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위원장&부위원장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위원장). 안녕하세요! 제74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군사학과 20학번 박상현입니다.
A(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제74대 졸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 화학생명공학과 18학번 이윤재입니다.

Q. 학사일정 중 졸업준비위원회가 제일 바쁜 기간은 언제 인가요?

학기당 두 번의 졸업 앨범 촬영을 할 때 제일 바쁩니다. 지난 2월, 제73회 전기 학위수여식 당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바쁜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졸업식 당일 학사복을 대여하러 오신 분들이 대략 500여 명이 몰려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전기 및 후기 학위수여식 당일에 학사복 대여 사업을 진행하느라 졸업식을 포함한 4일간 분주했습니다.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는 서경대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조직이다. 2023년 4월 기준 위원장, 부위원장, 정책국장, 기획국장, 선전국장, 사무국장과 산하 부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습부원은 매년 1학기 초에 모집한다.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우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 활동을 벌인다. 현재 진행중인 제휴는 서울 베스트 의료원과 건강검진 제휴, 밝은는 안과와의 라식 및 라섹 제휴, 원모아와의 혜택 제휴 등이 있다. 더불어 교내 사물함 대여, 간식 지원 등 교내에서 진행되는 복지사업을 통해 서경대 학우들이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원장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위원장).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34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김민경입니다.
A(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34대 학생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군사학과 21학번 최주원입니다.

Q.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이후 학생복지위원회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때는 학우들이 학교에 오지 않다 보니, 간식 지원이나 사물함 대여 등 기존에 진행되던 교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완화되며 많은 학우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이 학우들에게 필요할 것이라 판단해 하나씩 재시작하고 있습니다.

Q. 학생복지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외부 업체와 제휴를 맺을 때 이 사업이 정말 학우들에게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학우들이 가장 좋아할지를 사업의 중점으로 둡니다. 학우들이 더욱 좋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니즈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학우들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금급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조직이 되려고 합니다.

Q. 올해 학생복지위원회를 운영하며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A(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이 학우들이 학생복지위원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경대 학우들이 학생복지위원회가 있을 때는 몰라도 없으면 생각나는 존재,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떠올렸으면 합니다.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소통하고, 업체와의 제휴 시에도 다양한 업체들과 직접 미팅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최선의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학우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기존 혜택들을 더 활발히 관리하고, 더욱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를 맺으려 합니다. 무엇보다 홍보도 잘 진행해 서경대 학우들이 학생복지위원회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경대 자치기구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학교의 자치기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 행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감이 섰다. 되짚어보면 서경대의 ‘숨은 인력’인 자치기구는 동아리연합회, 신문사,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가 있었다. 예상보다 자치기구가 진행하는 행사 외에도 주관하는 사업이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학우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이처럼 네 곳의 자치기구는 서경대 학우들의 학교생활에 부수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별은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난다고 했다. 서경대학교의 별일 학우들을 위해 자치기구는 조명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도 쉼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서경대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자치기

구의 손길이 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치기구에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라본다.

효율성만을 추구한 '현금 없는 버스', 정말 괜찮을까?



현금 없는 버스 전폭 확대.. 현금 없는 버스 도입배경은?

코로나 19의 창궐은 현금 없는 사회의 도약을 더욱 가속했다. '비대면', '언택트'와 같은 단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비 접촉형 결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 업계 또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올라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현금 없는 버스의 확대 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436대였던 '현금 없는 버스'를 1,876대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운행 버스 중 현금 없는 버스의 비중이 기존 6%에서 25%로 증가했다.

대중교통은 '환승 할인'을 내세우며 교통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끝에 현금 없는 사회가 가장 빠르게 정착된 사례 중 하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현금 사용이 허용됐다는 점에서 현 정책과 차별성을 띤다.

서울시가 현금 없는 버스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현금 이용 승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시내버스 현금 이용 승객 비율은 2012년 3%에서 지난해 0.6%로 감소했다. 즉 현금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 수의 1% 미만인 셈이다. [출처 머니S]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버스 내부에 비치된 현금통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한 해 약 2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1% 미만의 현금 이용 승객을 위해서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낮은 현금 이용률에 비해 현금통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 높다는 게 버스 회사들의 고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은 대체로 현금 없는 버스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잔돈 계산으로 인한 버스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현금 지불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은 "잔돈을 계산하느라 운전



노년층 소외되는 '현금 없는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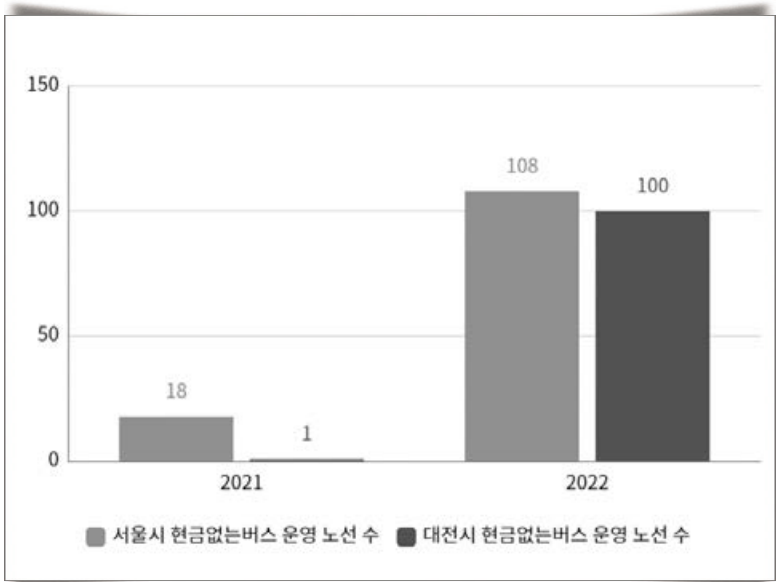
현금 없는 버스는 2021년 7월 대전-세종-청주-오송을 경유하는 간선 급행노선(BRT) B1(1001번) 노선에서 처음 시범 운행됐다. 1년간의 시범운행을 마친 후 대전시는 2022년 7월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에 현금 없는 버스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2021년 10월 18개 노선에 현금 없는 버스를 도입해 2023년 현재는 108개 노선, 1,000대 이상의 버스가 현금 없는 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인천시 또한 현금 없는 버스의 적용 범

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전 노선에 현금 없는 버스를 시행하며 만 19세 이상 대전시민이라면 최대 30%의 마일리지 적립할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 3회 무료 환승(1인 1교통카드) 등의 제도를 함께 도입하며 모든 시민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에서 현금 없는 버스의 도입을 결정하는 이유는 현금 이용자 수 대비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대전 시내버스 이용객 중 현금을 내는 비율이 2020년 2.2%, 2021년 1.8%로 감소하고 있었고, 2022년에는 1.5%로 이용률이 매년 급감하고 있었다. 반면 현금으로 낸 버스 요금을 정산하는 데에 매년 1억 5,000만 원의 관리 비용이 소요되었고 더불어 현금 정산에 따른 탑승 시간 지연, 거스름돈 분쟁 등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출처 대전광역시 버스운영과]

영향을 끼쳤다. 현금 없는 버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금에 더 익숙한 노년층이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2022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70대 이상의 현금 이용 경험은 98.8%로 매우 높은 반면에 체크·직불카드는 34.1%, 계좌이체는 22.7%, 모바일카드는 1.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김상철 서울시민 재정 네트워크 기획 위원은 "(현금 승객들이) 승차를 못했다고 항의하기보다 '내가 준비를 못 한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는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금 승차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1164번 버스 기사님 인터뷰

- 현금없는 버스를 직접 운행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164번에도 도입되려 했으나, 다른 노선의 시범 운행 후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아직 직접 운행해본 적은 없습니다.
- 현금없는 버스 운행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현금 운용 시 얼마 정도가 현금으로 유입됐는지 일일이 계산해보고 기록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태그해 요금을 내는 현금없는 버스의 경우 현금 계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 반면 카드가 없을 때는 상황이 모호해져 다소 불편합니다. 버스 노선 특성상 학생들을 주로 마주하는 저는 카드가 없거나 요금이 부족한 학생에게 '다음번에 탑승할 때 두 번 내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번 탑승 시 직접 확인할 수 없기에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상습적인 무임승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현금통으로 운임비를 받을 때 불편하신 점은 무엇이었나요?
현금이 들어올 경우, 승객이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거나 잔돈을 거슬러 주는 등 돈 계산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탑승할 때 일일이 신경 쓰기도 힘들 뿐더러, 혼잡한 상황을 틈타 무임승차를 한 승객을 발견했을 시 돈을 내라고 재촉하기에도 애매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 기사님 입장에서는 현금없는 버스와 현금통이 있는 버스 중 어느 쪽이 더 편리하신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금없는 버스가 훨씬 편리합니다. 계산 문제와 더불어 퇴근 후 현금통을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직접 현금을 정리하기도 해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69세 어르신 인터뷰

- 현금없는 버스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동네에 다니는 기존 버스 노선들 중에서는 아직 현금없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아서 직접 이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 현금없는 버스의 편리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승객들에게 편리한 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금을 낼 수 있는 방식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돈 계산을 안 해도 돼서 편할 것 같습니다.
- 현금없는 버스의 전면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면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노인들이 불편하겠죠? 카드를 사용하는 노인들도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 카드 같은 수단이 익숙하지 않아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현금 결제 안 돼요" 배려 없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 이대로 괜찮을까

어디를 가나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은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며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두툼한 지갑은 알아진 지 오래다. 카드 몇 장을 끼워 넣은 카드지갑을 들고 다니거나 달랑 카드 한 장만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삼성페이와 같이 모바일 결제가 상용화됨에 따라 지갑조차 들고 다니지 않게 됐다. 지난 2017년, 한국은행은 발행과 유통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스름돈을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등 현금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 현금 없는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2023년 현재, 장소를 막론하고 현금 결제를 꺼리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정말 현금 없는 사회가 가능한 것일까?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란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 및 각종 금융 기관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실질적인 현금의 이동이 없어진 사회를 일컫는 용어다. 즉, 동전 및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약 90% 이상 사용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한국은행이 2022년 6월 15일 발표한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급수단별 지출액에서 현금지출 비중

은 지속해서 하락하여 1.2%에 불과했다. 지금은 바로 현금 없는 사회가 아니냐고 생각할 만큼 현금의 사용률이 그리 많지 않음을 쉬이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위에는 여전히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소외 현상은 한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대다수의 고령층은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보다는 직접 은행 창구를 이용해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종종 은행 업무를 보러 온 다른 고객에게 물어보는 모습도 보인다. 이처럼 디지털 소외 현상은 금융 소외로도 이어진다. 은행 업무 이외에도 현금 없는 버스로 기본적인 이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현금 없는 버스 안내문을 보면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배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계좌이체를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버스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돌려 말하는 셈이다.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나이의 미성년자와 카드 사용에 미숙한 고령층은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곳들이 많아지자 '현금 결제권'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소비자에게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미 미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선진국에서는 현금 결제권을 보장하는 추세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편리하면서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애용한다. 지갑을 따로 들고 다녔던 현금을 때면 세워서 계산하는 일, 카드를 긁거나 킥한 한 번으로 결제되는 것에 비해 분명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편리한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 현장르포면에서는 '현금 없는 버스'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았다. 현금 없는 버스는 장점만 두고 보면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노년층 등의 약자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존재한다.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이러한 비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금 없는 버스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교통카드 구매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는 버스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한다면 정책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고 유지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껏 너무 편리함과 신속함,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이번 현장

르포 취재를 하며 우리 취재팀은 지금까지의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계속해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는 약자 계층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주간칼럼



4월에 만난 모차르트와 제자

주간 방미영 교수

4월이 되면 '사월은 가장 진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라는 토머스 스텐스 엘리엇(1888~1965)의 황무지의 쇠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4월은 엘리엇의 쇠귀처럼 겨우내 얼었던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환희의 순간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우리는 꽃을 피우기 위해 추운 겨울을 버텨온 나무들로부터 삶의 끈기와 인내를 배운다.

얼마전 졸업생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다. 그토록 하고 싶은 공연 기획사에 들어가서 처음 '아마테우'를 공연한다고 제일 먼저 교수님께 연락드린다고 했다. 열정과 열망을 가득 안고 있던 학생이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공연기획의 일로 재능의 꽃을 피울 줄 알았다. 서둘러 예

매를 하고 공연장으로 달려갔다. 로비에서 해후를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공연을 보았다.

아마테우스 모차르트는 영국의 유명 극작가 피터 셰퍼(Peter Shaffer)의 희곡으로 만들어진 연극이다. 유명한 연극이니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수차례 대형무대에서 공연된 바 있어 이미 '아마테우스'는 여러차례 본 상황이었다. 그러나 졸업생 제자가 스템으로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공연을 다시 본다는 의미는 충분했다. 두꺼운 프로그램 맨 뒤에 공연에 참가한 전체 스템이름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올라간 제자의 이름이 자랑스러웠다.

예전에 KBS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엔딩크레딧에 작가 방미영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에 당시는 너무 바빠 나머지 그것이 같은 의미를 크

게 두지 않았는데 이름 하나하나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경력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길이었다는 것은 한참 지난 후 알게 되었다. 아마 제자 또한 프로그램 하단에 작은 이름이 적혀 있지만 이름이 하나하나 적힌 프로그램이 쌓일수록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것이다.

이번 연극 아마테우스를 보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천재적 예술가도 그의 천재성을 알아차린 공경 약장 살리에리의 질투와 시기가 없었다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했던 궁정악장 제자의 이름이 자랑스러웠다. 생각적 음악성은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극중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보면서 "욕망을 갖게 했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지"라며 모차르트의 천재

적 재능에 비해 본인의 재능이 미천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더욱 집착하면서 신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있다. 궁정악장 살리에르는 3개 국어를 배워 오페라를 쓸 정도로 그의 명성 또한 전유럽에 떨쳤고, 살리에르는 죽기 직전까지 궁정악장을 지내면서 부유한 생활을 누렸다고 전해진다. 반면, 모차르트는 1791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주변인들과의 불화와 가난한 삶을 살다 간 불운의 천재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몇해 전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오스트리아 쾰치부르크 모차르트 생가박물관을 다녀왔다. 생각보다 소박하게 꾸며져 있는 모차르트 생가박물관은 노란색 건물로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작은 방에 모차르트의 일생이 담긴 소장품들이

놓여 있는데, 모차르트가 사용한 침대, 피아노와 바이올린, 서신과 자필악보가 보관되어 있다. 필자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들리는 듯해 한참을 서서 모차르트에 대한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 거장 음악가가 태어나 생활하던 곳은 참으로 소박하다는 느낌이 그 뒤로도 계속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다.

필자가 미니멀라이프를 추구하는 것은 모차르트처럼 거장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결코 물욕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재능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가 취입하여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올린 모차르트 공연에 망설이지 않고 한걸음 달려가 축하해준 것은 스스로 재능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었기에 응원과 힘찬 격려를 보내기 위함이다.

| 기자의 눈 |

‘친한 친구’라는 인덱스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집 주소를 알아야만 보낼 수 있던 편지, 전화번호를 알아야만 보낼 수 있던 문자 메시지와는 다르게 말이다. 따라서 이제는 관심 분야에 따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거나, 불특정 다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퇴장 버튼 한 번만으로도 관계를 끝낼 수 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비대면 소통을 더욱 익숙하게 만들어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상에서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활성화시켰다. 또한 취업과 결혼, 출산하는 나이가 비교적 균질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개별적인 생애주기를 보내게 된 현대인들은 친구 사이에서도 나누지 못하는 정보나 고민들을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ex) 맘카페 등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패러다임을 끌어냈다. 본인을 둘러싼 관계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깊이로 소통하는 '인덱스 관계'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리스트를 분류하고 식별하기 위한 인덱스에서 따온 이 단어는, 사람을 사귀는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많은 인간관계에 각종 색인을 뒀다 붙였다 하며 관계의 효용성을 극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덱스 관계는 만들기, 분류하기, 관리하기의 3단계로 나뉜다. 먼저 관계 만들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완전히 우연에 기대는 랜덤의 방식으로 형성된다. 다음으로 분류하기는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관계를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관리하

기는 분류된 관계에 붙여진 인덱스를 뺀다 붙였다하기를 반복하며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출처: 트렌드 코리아 2023

인덱스 관계라는 용어가 꽤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나의 편의를 위해 색인을 붙여 놓은 관계들이 눈에 띄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인스타그램의 '친한 친구' 기능이나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 기능이 있겠나. 이 기능은 다른 지인보다 더 친한, 혹은 다소 불편한 이들을 별개로 분류해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은 이들에게만 게시물이 공개되도록 세분화해준다.

반면 최근 유행했던 '에어드롭 놀이'도 인덱스 관계에 해당한다. '에어드롭은 애플 기기 간 사진이나 영상을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인데, 반경 9M 이내의

사람들과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놀이로 활용했다. 대중교통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어디를 기능을 켜 사람에게 일종의 유머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장난을 치는 것이다. 이는 낯선 타인과의 우연한 만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관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과거 학연·지연과 같은 인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우연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관계임에도 아쉬움을 갖거나 더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 [데일리팝 발췌]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관계는 '친하다/안 친하다'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선명하는 '인친', 함께 덕질하는 '트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페

친', 동네에서 만나는 '실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다. [시사한국 발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관계를 동등하게 챙기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기적이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인덱스 관계는 다소 정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본인 기준으로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리하는 행위가 내가 일종의 선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선택이 아닐까 싶다.

이종은 기자

(20eun00@naver.com)

| 기자의 눈 |

노래 속으로 떠나는 여행

필자는 노래를 들을 때 한 노래만 며칠씩 반복 재생하여 듣는 습관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들으면 질리지 않다고 물어볼 정도였고, 생판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며칠 만에 부른 사람의 창법까지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돌려 들었다. 마음을 사로잡는 그 노래 하나가 필자의 하루를 전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것도 며칠씩 돌려 듣는 노래와 관련된 꿈이었다.

처음은 윤하의 '별의 조각'이라는 노래였다. '돌아갈 수 있다 해도 / 사랑해 버린 모든 건 / 이 밤에 남아 숨을 쉬어 / 난 떠날 수 없어'라는 후렴의 한 구절에 빠져 며칠 내내 그 노래만 돌려 들었다. 노래를

돌려 듣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에는 필자가 외계인이 된 꿈을 꿔다.

필자는 그들과 외형이 묘하게 다르고 말하는 언어도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외계인인 필자에게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현실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밤, 건물 옥상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문득 한 친구가 "너는 외계인이야."라고 말했다. 거기에 필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고, 돌아갈 거냐는 물음에 그들을 껴안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다. 그곳은 지구가 아니었고, 필자만이 지구인이었기에 필자가 그곳에서는 외계인이었다는 사실을. 지구의 기준에

서 미지의 생명체에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은 것은 필자였다.

꿈에서 깨고 난 후 꿈의 내용이 '별의 조각'의 가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게 된 모든 존재가 살아 있는 외계의 별에 남는 것을 택했다는 것이 꼭 우주 미야 같으면 서도, 겁먹지 않았다는 게 신기했다. 그 뒤로 한동안은 기분이 묘해서 '별의 조각'을 듣지 못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이지'를 돌려 들은 후에는 하루 종일 목격지도 못한 채로 세상을 뛰어다니는 꿈을 꿔고,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Good 4 U'를 들던 주에는 친구들과 함께 나뉜 전 애인에게 화려한 복수극을 펼치는 꿈을 꾸기도 했다. 한 달 가까이 이런 일이 일어나자 새로 노래

를 찾아 듣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노래를 듣다 마음에 드는 상상 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 듣는 경우도 생기고, 마치 노래를 편식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노래를 듣고 꿈을 꾸게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예상컨대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와 어울리는 장면 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필자의 습관 때문일 것이다. 마치 이 노래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에 삽입된다면 그건 어떤 장면일지 떠올려보는 것과 비슷하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상상 속이라는 이유로 마음껏 펼칠 수 있던 자유처럼, 현실이 아닌 꿈을 통해 필자의 상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윤지예 기자

(jyeesunny@skuniv.ac.kr)

| 수습의 눈 |

내가 구매한 옷이 환경을 파괴시킨다

예뻐 보인단 이유로, 유행한단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한 옷을 입지 않고 방치하거나 버린 적이 있는가? 만약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내가 무심코 버린 옷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유행 속에서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옷을 소비하고 있다.

패스트 패션이란 최신 유행을 채용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대량 생산, 판매하는 의류 및 산업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표로는 H&M, 유니클로, 에이세켄즈, 자라 등이 있다.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장한 패스트 패션은 싼 가격에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려하게 빛나는 패스트 패션 뒤로는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면들이 존재한다.

우선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에는 약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는 한 사람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양이다. 게다가 의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면화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살충제의 양은 전 세계 사용량의 약 24%다.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료, 표백제 등이 사용되는데, 섬유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전 세계 폐수의 약 20%를 차지

한다. 의류 구매가 쉬워진 만큼 버리기도 쉬워졌다는 점도 문제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폐의류 발생량은 약 82,422톤으로 한 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한다. 2016년 58,692톤에서 2020년 82,422톤으로 5년 사이에 의류 폐기물 배출량은 140% 이상 증가했다.

의류 업계의 노동 착취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되는 옷을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은 의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 붕괴를 들

수 있다. 2013년 방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 건물이 붕괴해 약 1,100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약 2,500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라나 플라자는 대규모 의류 공장으로서 사고 당시 28개 다국적 패션 브랜드의 옷을 생산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전 건물 내부 규열이 발견되어 붕괴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방글라데시 이외에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노동 착취가 계속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착취당하는 노동자에 15세 이하의 어린이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예진 수습기자

(keumj7276@naver.com)

만/파/식/적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법

“열정! 열정! 열정!” 지난 2020년 유행하던 ‘밈(meme)’이다. 밈이란 인터넷에서 트렌드라며 떠오른 이미지나 사진, 짧은 글, 짧은 말을 뜻하는 단어다. 그러나 이 밈은 아쉽게도 오랜 시간이 지나 한철 지나 유행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까지 이 문장을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왜냐 이 문장을 생각할 때면 나태해졌던 마음도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정은 결승선을 향해 다시금 달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는 말과도 같다. 싫어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정적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열정을 쏟아붓는 곳은 바로 이곳 '신문사'다. "가치 있는 기사란 무엇일까?" 끊임없이 자문하며 더 좋은 '기자' 그리고 더 좋은 '편집장' 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콘텐츠 제작'이 좋아서 입사했던 신문사는 어느새 필자의 '꿈'이 됐고, 열정의 산물이 됐다. 즉 '진심'과 '경험'이 쌓여 현재의 열정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열정은 씨앗과도 같다. 손톱만큼 작았던 씨앗이 마칩내 커다란 나무로 자라듯, 열정은 작았던 무언가를 크고 단단하게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때로는 이유 모를 두려움이 일렁이기도 한다. 종종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선택이 큰 파장이 일으키는 순간이 찾아올 때면 다가올 내일이 두렵기도 하다.

그래도 이 또한 열정이 주는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두려움은 행동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와 같은 두려움에 맞서 싸워보기로 결심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설렘'이 공존하는 현 상황을 즐겨보려 한다.

만약 열정이 없었더라면 두려움의 감정을 마주했을 때 쉽게 도망치고 말았을 것이다. 이처럼 열정은 두려움에 맞서는 좋은 무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열정만이 감정이 도망가지 않도록 관리해보려 한다. 두려움이 무서워하는 것은 열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도 마음속 깊이 외쳐본다. “열정! 열정! 열정!”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사설

대학가에 퍼진 ‘JMS 주의보’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공개 이후 곳곳에서 거센 파장이 일고있다. 신도들에게 지속적인 악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교회, 일명 JMS의 근거지가 대학으로 지목되면서, 대학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학가 사이버 종교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이버 동아리의 명단과 각종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JMS에서 10여 년간 활동한 A군은 “모형을 만들어준다면, 길거리 캐스팅과 교육을 명분으로 친분을 먼저 쌓고 교육을 받으려 가면 기다리고 있던 회원들이 새로운 학생들을 포섭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같은 재난이 벌어지면 같이 봉사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JMS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내의 여러 교회들도 단처해졌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과 단체와의 접촉을 피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교회 공표증이 확산되고 있다.

JMS 반대단체 '엑소더스'의 전 대표 김도형 교수는 “사회 곳곳에 JMS 신도가 있다며, 사회를 병들게 하는 추악한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사람을 만나기 쉽다”라며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논문에 사용할 설문조사나 심리 테스트를 동원해서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피치 강좌를 한다고 강의실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종교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접근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이에 대해 마련에 나섰다. 경희대는 외부인의 학내 포교 활동을 차단하고, 감시를 강화하였고 이화여대는 예배 수업을 통해 사이버 종교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동아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사이버 종교단체의 포교 활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학교 당국이 학생 피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학교 당국의 감시 강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대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이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사이버 종교 단체에 빠져들지 않도록 방지하고, 보다 건강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공간이며 종교활동의 자유를 부여받는다. 때문에 학교는 이 사태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 대처법'이다. 학생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학교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을 뿐이다. 대학은 적극적인 감시와 대책 강화가 필요하며, 학생들 또한 사이버 종교에 현혹되지 않는 단호하고 주체적인 대학생활이 절실히 보인다.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

이달의 책

아름답지만 한 자연은 없다 - 물에 잠긴 세계 J.G. 벨러드



지구 끝의 끝인 극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육지는 물에 잠겨 사라졌고, 생물들은 역진화를 시작해 급기야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생명체들이 다시 출몰하기 시작한다.

이 소설은 타임스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영국 작가 50인 중 한 명인 SF의 거장 J.G. 벨러드의 '지구 종말 시리즈' 중 첫 작품이다. 살아남은 인류 중 환경을 연구하는 생물학자 로버트 케렌츠의 남쪽으로 떠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지구를 뒤덮는다. 지구의 주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파충류가 됐다. 인간이 살던 문명은 전부 물에 잠기며 석호로 변했다.

지구는 온난화로 인한 이상 고온과 대홍수의 결말은 지구의 빙하가 녹아버리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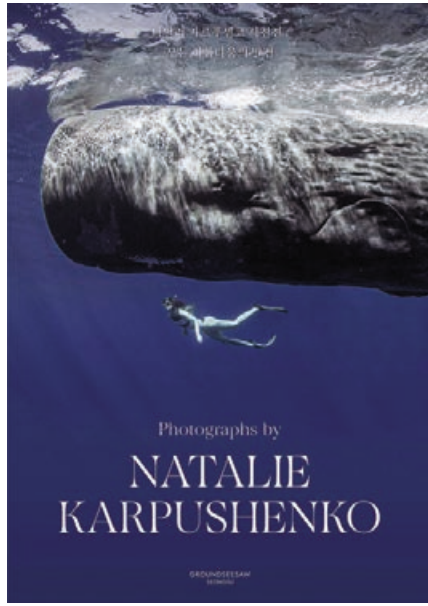
등장하는 종말 이후 자연의 묘사는 현실에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감과 흡입력을 불러온다. 로버트를 따라 인류의 무덤과도 같은 런던을 누비다 보면 자연의 거대함과 공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지구의 운명을 세우려는 우리는 아직도 자연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모른다.

윤지에 기자 (jijesunny@skuniv.ac.kr)

이달의 전시회

바다에 흠뻑 취해볼 수 있다면 - 나탈리 카프루셴코 사진전: 모든 아름다움의 발견



평생을 살면서 고래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경험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여기 그 경험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바로 사진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카자흐스탄 출신의 예술가 나탈리 카프루셴코다.

전시는 바닷속에서 출발해 숲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따라 총 여섯 가지의 섹션으로 나뉘었다.

선 브레스'를 포함해 200여 점의 사진과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영상 '워터 드롭'까지 오감을 자극할 작품이 많이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되는 <인트로>에서는 작가와 사진전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두 번째 섹션 <오션 브레스>는 수중에서 고래와 함께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실제로 보고 싶다면 바로 답을 볼 수 있다.

다들 보곤, 보호하기 위해 연설, 영화, 책, 리더십 등을 활용하여 개인과 기업, 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사람인 '해양 옹호자'기도 한 카프루셴코, 작품을 보다 보면 작가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해진다.

작품 감상 내내 알게 깔린 배경음악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평화로운 자연에서의 휴식을 연상시킨다. 도슨트는 예정된 시간이 따로 없이 언제든지 각자 원하는 때에 VIVE 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송민경 기자 (lildawn012@skuniv.ac.kr)

이달의 영화

바다의 선택을 받은 공주 - 모아나 (2017)



자신의 운명을 따르고 싶어한다. 어느 날, 해변에 떠다니는 빈 보트를 발견한 모아나는 바로 자신이 섬을 떠나야 할 운명임을 깨닫는다.

모아나는 그녀의 용기와 끈기로 다양한 위험과 고난을 극복하며, 마침내 테피티의 섬을 찾는다.

모아나는 바다에 다시 생명이 돌아오면서 마을은 활기를 되찾는다. 모든 사건이 끝난 이후 모아나와 마우이를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은 다시 바다로 떠나게 되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모아나'는 태평양의 자연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다.

한 '모아나'는 여러 민속이나 전설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영화에서는 바다와 섬,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모아나는 바다와 섬, 그리고 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다.

다양한 캐릭터, 멋진 그래픽, 화려한 음악,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모두 완벽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다.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

이달의 음악

자연은 우리 가까이에 머물러

그리운 일이 되기도 하고 언제나 곁에 있는 벗이 되기도 하는 자연은 우리에게 늘 친근한 존재다. 새싹이 움트는 봄에 들어 활기찬 지금에 딱 들어맞는 자연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담긴 곡을 꼽아 봤다.



<Waters Of March> - sogumm, 임금비

"A stick a stone it's the end of the road It's the rest of a stump it's a little alone It's a sliver of glass it is life it's the sun It is night it is death it's a trap it's a gun"

원곡은 '보사노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의 'Aguas De Março'다. 리메이크 곡인 이 노래는 '3월의 비'라는 제목처럼 촉촉한 음식으로 가득하다.



<초록을거머쥐우리는> - 잔나비

"오월 하늘엔 휘파람이 분대요 눈여겨둔 별이 누우면 팔베게도 스프르르 그 애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나풀대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어느 봄날 한강공원 어디쯤에 가만히 누워보면 저절로 들 법한 한가로운 생각을 담았다"는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한강에 돛자리를 펴고 소풍을 온 모습이 그려진다.



<물고기> - 백예린

"난 땅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물고기였을지도 몰라 가끔 내 맘을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상관없어 ... 너만은 나를 알아봐야 해 너만 알 수 있는 내 마음을 복잡한 너만의 언어를 알아봐 줘"

노래의 제목을 보자마자 '수어지교'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가사를 읽고 노래를 들으면 '물과 물고기 같은 사이'라는 문구가 더욱 선풍해진다.

송민경 기자 (lildawn012@skuniv.ac.kr)

이달의 장소

도심 속 작은 숲 - 창경궁 대운실



해 나는 한 없이 작게 느껴지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답답한 도심의 빌딩숲 사이에도 푸른빛이 가득하고 풀 내음이 코끝을 스치는, 어느새 낭만을 잊어가는 내 마음에도 여유를 가져다줄 것만 같은 공간이 있다.

우리는 매일 사람이 빼곡한 대중교통을 타고 뱅뱅거리는 소음이 난무하는 도로를 지나 저마다의 일터에 도착한다. 이제는 이러한 도시의 풍경이 너무나 익숙하고, 가끔 푸르른 전경을 보는 것은 휴식하기 위해 도시 외곽으로 나설 때나, 동네의 작은 공터를 거닐 때뿐이다.

뒤, 왕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지은 것이기에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건축물이다. 대운실 내부에는 천연기념물의 모수에서 직접 채취해 키워낸 나무인 후계목,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와 식충식물류, 양치식물류, 고사리류 등 약 70여종의 다채로운 식물이 전시돼 있다.

창경궁 대운실은 현재 야간 개장 중이기에 청사초롱이 깔린 창경궁 내의 산책길을 고즈넉하게 거닐다 한 번 들어가 보기에 좋다. 만 24세 미만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므로,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영혼을 충전하고 싶은 학우들에게 방문하길 권한다.

이준은 기자 (20eun00@naver.com)

이달의 스포츠

K리그에 불어온 산뜻한 봄바람

하하원큐 K리그 2023이 2월 25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올해 K리그는 2013년 승강 플레이오프 도입 이후 개막전 최다 관중인 10만여 명을 불러 모았다.

이러한 흥행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영향이 매우 컸다. 손흥민(토트넘)에 의존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벡스호(전북 현대)와 나상호(FC 서울) 등 여러 K리그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감을 높였다.

아니라 유통 업체까지 전제했다. 선수들의 공식 유니폼을 찾는 스포츠 팬들의 발길이 많아졌다. 유명 의류 판매 플랫폼인 무신사 플레이어는 '골스튜디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퓨마' 등 여러 스포츠 브랜드와 상품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이런 협회의 노력에 부응하듯 구단의 경기력도 많이 개선됐다. 과거 축구 특목팀으로 불렸던 대전은 8년 만에 K리그1 무대로 돌아와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우승을 향해 달려온 K리그는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해 보인다. 축구는 결국 경기장에서 경기 보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재미는 기술에서 나오므로 이 기술을 보여줄 수 있게 연맹은 최선을 다해서 서포터해야 한다.

이런 흥행은 구단과 협회뿐만 아니라 유망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잔디에 더 투자하고, 관중이 없으면 흥행을 팔지 못한다면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준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